

인간 본성의 더 높은 차원

아브라함 H. 매슬로(Abraham H. Maslow)
브랜다이스 대학(Brandeis University)

지금 우리는 철학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음을 선명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일나무의 모든 가지에서 동시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처럼, 통합적인 체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과학과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이 이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심리학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혁명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러한 발전이 다른 분야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본주의적 재정향(humanistic reorientation)이라는 이 새로운 시대 정신은 사회 제도, 일, 여가, 교육은 물론 과학, 철학, 종교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통된 신념과 의도를 바탕으로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인본주의 혁명, 즉 인간의 욕구로 돌아가는 움직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관심의 중심이자 인간 지식이 성장하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 인식론, 형이상학, 과학, 그리고 모든 인간의 관심사를 인간의 욕구와 경험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칸트, 헤겔, 라이프니츠로 대표되는 독일의 전통적인 지적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들의 방식은 추상적이고 선형적인 것에서 시작해 일반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으로, 교훈적이고 우아하지만 완전하지 않고 종종 실용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큰 추상적 개념에서 시작해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위험성은 이 추상적 개념들이 실제 경험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헬륨으로 부풀어진' 단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런 단어들은 현실에서 떨어져 허공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리학에서 제3의 흐름이라고 불리는 인본주의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은 가장 근본적인 현실, 즉 인간의 경험 그 자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실제 인간의 경험과 욕구, 목표, 가치에 대한 개념, 필요한 추상화, 그리고 정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현대 심리학의 다른 두 흐름인 행동주의와 프로이트 심리학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행동주의(behavioristic) 심리학(객관주의적, 실증주의적 심리학)은 간단히 말해 성공적인 과학들을 모델로 삼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과학은 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질학 등으로, 대체로 사물이나 대상을 다루는 과학들입니다. 심리학에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물리학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물리학 등의 최고의 방법을 모방하는 것이다. 그들의 방식대로 우리의 일을 하자." 이런 말없는 태도의 한 결과로, 인간을 마치 대상인 것처럼, 사물인 것처럼 연구하면서 많은 정보가 축적되었습니다. 금속이나 빛의 성질을 연구할 때 사용할 법한 동일한 절차, 방법, 개념, 정의, 태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과학 스타일은 기계 형태학적(mechanomorphic)이라고 불립니다. 이 방식의 현재 인기는 그것이 얻은 결과나 답할 수 있는 질문의 종류보다는 그것이 모델로 삼은 과학들의 명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의 다른 주요 흐름은 프로이트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프로이트가 제안한 원래의 아이디어와 방법에서 파생된 수정이나 반영들이 포함됩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런 종류의 심리학은 다윈 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의 또 다른 기본적인 경향을 반영합니다. 이 관점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마치 동물인 것처럼 다룹니다. 물론 인간은 동물이지만, 그들은 인간을 단지 동물일 뿐, 오직 동물로만 취급하여 인간에게 고유한 동물적 특성들이 어떤 면에서 적절히 '과학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프로이트 자신은 신경학, 비교 해부학 등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정은 인간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등 동물과 공유하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등 동물과 공유하지 않는 특성이라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거나, 연구 대상이 되지 않거나, 과학적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인간에게 고유한 더 높은 특성, 이러한 더 높은 열망, 더 높은 가치들은 프로이트적 관점에서 명백히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들의 경향은 이타주의나 친절과 같은 특성을 동물적으로 설명하거나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학'이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의학의 직장학 전문 분야를 따라 명명한 것입니다 – 직장, 항문 등을 연구하는 분야죠. 이것이 인체의 한 입구이고 주제에 접근하는 한 방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욕구를 생물학적 기원으로 보는 점에서 프로이트 모델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인본주의 심리학의 주요 강조점은 '더 높은 욕구'에 대한 가정에 있습니다. 이들은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본질이나 종의 특성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제가 사용하는 용어는 '본능유사적(instinctoid)'인데, 이는 본능은 아니지만 유전자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되는 유전적인 의미에서 본능과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더 높은 인간의 욕구들은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사랑의 욕구, 우정, 존엄성, 자존감, 개성, 자아실현 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리적인 가설로 만드는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욕구에 대해 그렇습니다.

아마도 인간 본성의 더 높은 가능성들이 생물학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인간 본성이 과소평가되어 왔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존엄성에 대한 욕구는 건강을 위해 칼슘이나 비타민이 충분히 필요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 근본적인 인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병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되면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끼고, 존중받으며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고 무엇이 그들을 동기부여하는지 물어보면, 여러분은 다른 영역에 있게 됩니다. 이 영역은 제가 자아초월적

(transhumanistic)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행운과 발전,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을 동기부여하고, 만족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 욕구를 넘어선 무언가에 의해 동기부여됩니다. 이 자아초월적 영역으로의 출발점은 그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때 나타납니다: "어떤 순간이 당신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나요? 어떤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인가요? 당신의 일과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보상의 순간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궁극적 진실의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로버트 하트만(Robert Hartman, 1967)이 '본질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진실, 선함, 아름다움, 완벽, 탁월함, 단순함, 우아함 등입니다. 이는 결국 이 제3의 심리학이 제4의 '자아초월 심리학'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초월적 경험과 초월적 가치를 다룹니다.

충분히 성장하고 매우 운이 좋은 사람들은 최상의 환경에서 자신을 넘어서는 가치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의미에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이나 정의, 질서 같은 것들은 개인의 피부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욕구를 우리가 음식에 대해 느끼는 욕구처럼 이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정의를 실현하거나 그것을 허용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내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 혈관을 따라 흐르는 것도 아니죠. 그런 만족감은 내 안팎에 똑같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자아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아초월 심리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저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내용들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검증이 가능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하고 가치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현대 과학의 전통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과학적 접근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사물의 세계는 어떤 면에서 가치중립적이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가치에 의해, 가치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관점은 기계적인 과학 모델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가치중립적으로 만들고 단순한 기술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에 대한 거부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향

은 이미 교육, 간호, 사회 복지 등 여러 전문 분야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Maslow, 1966).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일하는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고, 더 효율적이고 유능해지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사회철학자는 한 명도 없죠. 제가 학과 친구들에게 "좋은 사회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마다 그들은 화제를 돌립니다. 지난 학기에 저는 "유토피아 사회 심리학"이라는 세미나를 열었는데, 사회복지사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길을 잃었지만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시험 비행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런 새로운 흐름의 또 다른 특징은 재신성화, 재영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과학은 모든 것을 세속화하고 중립적이며 실증주의적으로 만듭니다.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만을 다루죠. 하지만 자아초월주의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가치와 가치 경험, 그리고 절정 경험이나 초월 경험의 문을 열면 전혀 새로운 수준의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절정 경험을 한 사람들의 보고가 위대한 신비주의자들의 보고와 자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신비주의자들은 "통합적 의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치중립적 과학이 과학의 영역에서 제외했던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지식이 아니라 고 여겨진 거죠. 이 단어들은 감정, 소망, 욕구, 존재 상태, 다른 형태의 앎을 설명 하지만, 가치중립적 과학에서는 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배제해 왔습니다.

이런 논의가 처음부터 가치 지향적이었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겠네요. 제가 말하는 자아실현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의 모범이 되는 구성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와 다른 연구자들은 인류 전체나 평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이고 재능 있거나 아마도 가장 지적인 선별된 표본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는 통계적 접근이기는 하지만, 흔치 않은 방식이죠. 저는 이를 "성장점 통계"라고 부르는 생물학적 비유를 사용합니다.

성장점은 모든 활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염색체가 분열하고 모든 성장 과정이 가장 생생하고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죠. 제가 사용한 기법은 전체 인구를 표본 추출하는 대신 가장 뛰어난 표본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이를 통해 얻은 놀라운 결과들과는 별개로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그 종목에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의 인간 잠재력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육상부에서 뛰었을 때만 해도, 100야드를 10초 이내에 달리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이었습니다. 1마일을 4분 이내에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누군가가 해냈기 때문에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해낼 때마다, 새로 태어나는 모든 아기의 잠재력, 지평선, 한계가 높아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든 인간의 잠재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충분히 발달하고, 가장 충분히 인간다운 사람들을 찾아 선별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건만 좋다면, 그저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기만 해도 인류 전체가 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평균적인 표본이 아니라, 상위 1%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부분의 성장점 표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이로부터 모든 것이 훌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작업, 모든 제도 – 과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 수학, 물리학도 인간의 제도입니다 – 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미지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인간의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사랑에도 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설명한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존재 사랑'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개념입니다. 꼭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잠재력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성(性)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성은 절정 경험, 신비로운 통합 경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천국으로 가는 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는 과학이 탐구할 새로운 영역을 열어줍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생활을 조사해 보면, 전체 인구의 99%가 성이 가진 진정한 가능성을 모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이 얼마나 고조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죠.

우정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단계가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우정이 가능합니다. 최상의 상황에서 우정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연구해 보면, 실제로 우정이 어떤 모습인지가 냉혹하고 차갑게 대비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진정한 우정에 대한 비전은 다시 한번 연구로 이어질 수 있고, 치료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마도 그것을 더 현실화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서도 가능하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 산업 현장, 경영과 리더십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시들은 현대의 인본주의 심리학과 자아초월 심리학에서만 들어지고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개념들 중 일부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그렇듯 불확실하지만, 수 세대 만에 처음으로 더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미지와 문명에 대한 이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명과 그 이익은 개인의 이익과 반드시 대립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개인에게 좋은 것은 문명에 나쁘다는 식이죠. 즉, 만약 개인이 이기적이고, 자신을 내버려 두고, 충동적이며, 자제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프로이트의 관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더 높은 가능성, 즉 건강한 사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를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더 낫다거나, 더 건강하다거나, '성장 촉진 잠재력'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가치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최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회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현실과 객관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객관성 개념이 있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객관성 개념은 '관찰자의 객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누가 이기고 지는지 과학자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재 사랑'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제에 대해서도 '존재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꼭 인간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아이에 대해 충분한 '존재 사랑'을 가지면 아이를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가능해집니다(이는 대단한 성취입니다).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도가적인 의미에서 아이를 놓아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사과나무나 동물, 또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두는 태도에서 가장 정확한 인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태도의 반대는 선택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써먹지?", "이게 나한테 좋을까, 나쁠까?", "이걸로 뭘가 얻을 게 있나?", "이게 나한테 위험할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건 항상 추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뭘가를 보고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는 건 그것의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결국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셈입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섭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면 덜 추상화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진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종교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이 예시 하나가 제가 비판하고 싶은 분야, 즉 너무 기술적이거나 전문화되는 분야들을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한 절정 경험을 보면, 이게 꼭 특정 종교나 장소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절정 경험은 전통적으로 보편적인 종교 경험이라고 여겨졌던 거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종교적으로, 또

는 신성하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런 경험은 시간과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공식 종교에서 일어난 전문화나 특수화와는 대조적입니다. 종교 단체들은 특정 날짜, 건물, 사람, 말 등이 저절로 종교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성지가 있고, 그곳에 들어갈 때 종교적 감정을 느껴야 하고, 나올 때까지 그 감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오면 그 감정을 접어두고, 다음에 또 그곳에 갈 때까지 종교적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현대 교육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교육은 삶 전체를 교육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이 특정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 뉴욕 시 교사들의 파업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었다면, 우리는 진정한 교육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들과 동네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학교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전문가들이 다시 통제권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고, 교육은 다시 굴조각처럼 3학점 단위로 잘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 모두 같은 크기이고 서로 분리되어 있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문성이나 기술에 염매이지 않고 궁극적인 가치에 주목한다면, 삶의 모든 면을 교육화하고, 종교화하고, 과학화하고, 미학화하고, 철학화할 수 있습니다. 치료 경험과 치료의 개인 성장 촉진 측면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삶 전체를 채울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 또는 어떤 부분이라도 신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낙관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나요? 답은 이것이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경험주의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현실적이 되는 것, 즉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잘 관찰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논의한 모든 가능성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가능성들입니다. 이것들은 인구의 1% 미만에서 관찰된 가능성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건강한 1%, 또는 가장 창의적인 1%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현실적인 진술이며, 검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진술들을 통계적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신뢰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가? 제가 말한 '성장점 통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한,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거나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통제하는 폭탄과 버튼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모두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학적 비전, 즉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경험적 비전을 얻는다면 – 이는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것들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명확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러한 인식은 이 모든 것을 인간 활동의 영역 안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 그리고 전 인류에 대해 희망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REFERENCES

HARTMANR,. *The structure of value*. Carbondale, Ill.: S. Ill. Univer. Press, 1967.

MASLOWA, H. *The psychology of science: a reconnaissance*. New York: Harper & Row, 1966.